



9월 10일 정오(CEST)까지 보도 금지

글로벌펀드, 7천만 명 구했지만 발전 위험 경고

새로운 보고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의 주요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확약과 투자가 없다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이룬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펀드의 제8차 기금 보충은 이러한 치명적 질병들의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지속에 핵심적이다.

2025년 9월 10일

제네바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펀드)는 오늘 연간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글로벌펀드 설립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록의 달성을 공개했다.

2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 리더들, 영향 받는 커뮤니티, 일선 보건 종사자들이 주도한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에이즈, 결핵(TB), 말라리아로 인한 합산 사망률을 63% 감소시키고 합산 발병률을 42% 낮췄다.

글로벌펀드의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적절한 도구, 강력한 파트너십,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가 세계 보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안주할 여지가 없다. 세계 보건 커뮤니티는 분열을 줄이고 중복을 없애며 국가들이 글로벌펀드와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글로벌펀드는 과감한 변화를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다. 모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국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재정 지원 보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입증하며, HIV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받는 기록적인 환자 수, 치료를 받는 기록적인 결핵 환자 수, 지속적인 말라리아 예방 노력의 확산 등 세 가지 질병 퇴치에 대한 성과를 강조한다.

HIV와 에이즈

2024년에 글로벌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HIV 감염인의 88%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9%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었고, 74%가 바이러스 부하가 억제된 상태였다. 이는 각 지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HIV 예방을 위한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사용이 급증하여, 2024년 글로벌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서는 2023년 대비 325% 증가한 140만 명이 PrEP을 복용했다. 2024년 말, 글로벌펀드는 유망한 HIV 예방 주사제인 [레나카파비르를 2백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02년 글로벌펀드 설립 이후, 글로벌펀드가 투자한 국가들에서 에이즈 관련 사망률은 82%, HIV 발병률은 73% 감소했다.

그러나 HIV는 여전히 주요 전염병으로서 글로벌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2024년에는 63만 명이 에이즈 관련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의 신규 HIV 감염인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목표인 37만 명에 비해 약 3.5배에 달한 수치이다.

결핵

2023년에 글로벌펀드가 투자하는 국가들에서 모든 형태의 결핵 치료 적용률은 75%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의 4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약제 내성 결핵 환자 중 44%가 치료를 시작했다. 결핵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88%가 성공적으로 치료받았고, 결핵을 앓고 있는 HIV 감염인 중 91%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결핵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에서 [인공지능 기반 검출 기술 및 휴대용 디지털 흉부 X선 기기](#)와 같은 혁신적 도구 접근성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02년 이후, 예방, 검사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누락된” 결핵 감염자 발견 및 치료, 약제 내성 결핵 퇴치, 결핵 치료제 가격 인하 노력은 결핵 사망률의 57%, 발병률의 28% 감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결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2023년에 약 13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약제 내성 결핵은 여전히 글로벌 보건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남아있다. 취약한 보건 시스템, 분쟁, 경제적 압박은 지난 20년간 이룬 성과를 되돌이킬 위험이 있다.

말라리아

2023년, 글로벌펀드가 투자하는 국가들에서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보급률은 61%에 달했으며, 위험에 처한 인구의 53%가 모기장을 사용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말라리아 징후와 증상이 보이는 사람 중 95%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2002년 이후 커뮤니티 보건 종사자 및 지역 주도적 해결책 지원, 검사·치료·예방 옵션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이중 활성 성분 살충제 처리 모기장](#) 보급 확산의 가속화, 약물 및 살충제 내성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은

사망률을 51%, 발병률을 26% 각각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수리남과 동티모르가 202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은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말라리아 퇴치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분쟁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혼란, 항말라리아 약물과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증가로 말라리아 퇴치 노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금 노력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말라리아가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고 재발할 수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위협에 빠지고 글로벌 보건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보건 시스템 강화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2024년에 글로벌펀드는 100여 개국의 보건 시스템 및 질병 감시에 미화 27억 달러를 투자해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발병의 감지·추적·억제를 지원했다. 이로써 글로벌펀드는 팬데믹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외부 지원금 최대 공급처가 되었다. 특히 실험실 및 진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투자는 HIV,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유두종바이러스와 같은 동시 감염 질환의 탐지 및 관리 능력도 향상시켰다. 또한 투자는 엡폭스, 에볼라, 마버그 바이러스, 크림-콩고 출혈열 등 고위험 질환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펀드는 국가들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구축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여 세 가지 질병 퇴치와 보건 및 커뮤니티 시스템 전반의 강화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국가적 계획 및 조정력, 공급망 인프라 및 능력, 보건 인적 자원,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들이 보다 뛰어난 자립성을 구축해 감에 따라 글로벌펀드 투자를 통한 발전이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2년 이래 38개국에 걸친 52개의 HIV, 결핵, 말라리아 질병 프로그램이 글로벌펀드로부터 전환되었다. 2026년까지 8개국에서 추가로 12개 프로그램이 글로벌펀드의 지원에서 벗어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및 불안정에 대한 대응

2024년에도 광범위한 분쟁과 불안정은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발전을 계속 위협했다. 전 세계 인구의 16%가 거주하는 취약 국가 및 지역(Fragile contexts)이 이를 불균형적으로 부담 지고 있으며,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의 거의 3분의 2, 결핵 환자의 4분의 1, 신규 HIV 감염자의 17%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부터 수단,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펀드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 보건 서비스와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이티, 모잠비크는 글로벌펀드 긴급 기금의

가장 큰 비중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취약 국가 및 지역에서 기존 HIV, 결핵, 말라리아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 기금의 감소 그리고 부채 위기, 분쟁, 난민 발생, 인권 침해 등 상호 연결된 위기들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협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펀드의 제8차 기금 보충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국이 되어 2025년 2월에 개시한 [글로벌펀드의 제8차 기금 보충](#)은 세계 보건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성공적인 기금 보충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십 년 동안의 발전을 되돌이킬 수 있는 재발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긴급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은 이미 조기 공약을 발표했으며, 민간 부문 파트너로 어린이투자기금재단(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과 다케다도 이에 동참했다. 이러한 약속은 생명을 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모멘텀과 전 세계적인 결의를 드러낸다.

성공적인 기금 보충을 통해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2,3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2023년 대비 2029년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사망률을 64% 감소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발병에 대응하고 자립성의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보건 및 커뮤니티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파트너십이다. 글로벌펀드는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과 싸우고 이를 부추기는 부당함에 도전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100여 개국 이상에서 보건 시스템과 팬데믹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50억 달러를 조달하고 투자한다. 글로벌펀드는 세계 지도자, 커뮤니티, 시민사회, 보건 종사자, 민간 부문을 하나로 모아 가장 큰 효과를 내는 해결책을 찾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2002년 이래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